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6 -
“탈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 발표

- 탈모환자, 심리적·경제적 고충...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남녀 비율도 비슷
- 현재 전체 치료 중 2%만 건강보험 적용, 비싼 약값 탓 전립선 치료제 처방도
- 탈모 치료약 및 증증 치료용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탈모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시선과 불안,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이고, 남녀 비율이 비슷한 만큼 특정 연령이나 성별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병적 탈모’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능성 탈모’는 비급여이다. 노화나 유전 등으로 인한 기능성 탈모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간주 되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선대위 확인 결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탈모환자는 전체 탈모인의 2.3%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탈모약 복용 시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어 이중 소외란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적정수준의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탈모 치료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탈모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의 활성화 효과와 이에 따른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이 사례들과 달리 포폴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면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덧붙여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라면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겠다” 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14일 발표한 탈모 지원 공약은 공약 검토 입장을 밝힌 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진행한 ‘리스너 프로젝트’ 관련 자리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건의가 있자 이 후보가 화답을 하면서 해당 제안의 공약화가 급물살을 탔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 등에서 공감과 지지가 이어지는 등 반응이 뜨거웠고, 이에 이 후보 또한 ‘이재명은 심는 것’ 이라는 동영상까지 촬영, 게시하며 호응한 바 있다.

선대위는 이번 공약화 과정이 그간의 요구를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청원으로 올라온 바 있다.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 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 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 3천 명으로 2016년 21만 2천 명 대비 9.9%로 증가했다. 30대 이하 탈모환자가 절반이 넘는다(51.4%). 그리고 남성이 13만 3천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첨부] 설명자료

1. 탈모 건강보험 적용 여부

○ (병적탈모치료-급여)

- 면역세포가 자신의 모근을 공격(자가면역질환)해 탈모 발생, 주로 동전 모양의 ‘탈모반’ 형성이 특징으로 심하면 전신 탈모로 진행
- 탈모부위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및 싸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 경구 투여 등 위주로 주로 피부과 전문의가 실시

○ (기능성 탈모치료-비급여)

- 빠르면 사춘기부터 머리숱이 줄어들며 머리 측면과 뒷면은 보전되고 중앙이 비는 M 또는 O형 탈모가 일반적, 가족력과 일부 연관
- 프로페시아 등 경구약제, 미용 목적 모발이식*, 두피건강 증진을 위한 두피케어 등으로 치료
- * 프로페시아정 판매가 14~16만원(3개월), 모발이식 약 2천모(100cm²)당 300~500만원 수준

☞ 질병 요인의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 중이나, 노화에 대한 외모 개선 목적인 기능성 탈모 치료는 모두 비급여

[참고] 탈모 관련 건강보험 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비급여대상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2. (병적) 탈모환자 및 진료비 현황

2020년 진료인원 23만 3천 명 ... 남성 13만 3천명, 여성 10만 명
- 30대 22.2%(5만 2천 명), 40대 21.5%(5만 명), 20대 20.7%(4만 8천 명)의 순

(1) 탈모환자

- 5년 동안(2016년~2020년) ‘탈모증*’ 질환으로 한 번 이상 진료받은 인원 87만 6천 명
- * 탈모증(L63-L66)이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
- 탈모증 진료인원 2016년 21만 2천 명에서 2020년 23만 3천 명으로 2만 1천 명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 2.4%

< 2016년~2020년 '탈모증' 질환 성별 진료인원 >

(단위 :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16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
전체	212,141	214,228	224,800	232,596	233,194	9.9	2.4
남성	117,492	119,145	126,456	132,355	133,030	13.2	3.2
여성	94,649	95,083	98,344	100,241	100,164	5.8	1.4

- 2020년 탈모환자 : 30대 22.2% > 40대 21.5% > 20대 20.7% 순
 - 특히, 30대 이하 탈모환자가 절반 넘어(51.4%)
 - 남성 57.2%(13만 3천명). 10대~40대 남성이 많고, 9세 이하와 50대 이상 여성 많아

<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 / 성별 진료인원 >

(단위 : 명, %)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33,194 (100)	3,970 (1.7)	15,970 (6.8)	48,257 (20.7)	51,751 (22.2)	50,038 (21.5)	38,773 (16.6)	18,493 (7.9)	5,001 (2.1)	941 (0.4)
남성	133,030 (100)	1,735 (1.3)	9,124 (6.9)	29,586 (22.2)	33,913 (25.5)	29,607 (22.3)	19,186 (14.4)	7,843 (5.9)	1,740 (1.3)	296 (0.2)
여성	100,164 (100)	2,235 (2.2)	6,846 (6.8)	18,671 (18.6)	17,838 (17.8)	20,431 (20.4)	19,587 (19.6)	10,650 (10.6)	3,261 (3.3)	645 (0.6)

(2) 진료비

- 2020년 '탈모증' 질환 총진료비 387억 원. 2016년 대비 44.4% 증가

< 2016년~2020년 '탈모증' 질환 성별 총진료비 >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16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
전체	26,832	28,650	32,364	36,173	38,739	44.4	9.6
남성	14,693	15,728	17,895	20,138	21,697	47.7	10.2
여성	12,139	12,922	14,469	16,035	17,042	40.4	8.9

- 2020년 탈모질환 진료비 : 40대 23.0% > 30대 21.6% > 50대 18.7% 순
 - 10대~40대 남성 많고, 9세이하와 50대이상 여성 많아

<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 성별 총진료비 >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38,739 (100)	473 (1.2)	2,434 (6.3)	7,010 (18.1)	8,383 (21.6)	8,905 (23.0)	7,260 (18.7)	3,328 (8.6)	798 (2.1)	149 (0.4)
남성	21,697 (100)	224 (1.0)	1,440 (6.6)	4,127 (19.0)	5,401 (24.9)	5,083 (23.4)	3,575 (16.5)	1,489 (6.9)	307 (1.4)	52 (0.2)
여성	17,042 (100)	250 (1.5)	994 (5.8)	2,883 (16.9)	2,982 (17.5)	3,821 (22.4)	3,685 (21.6)	1,839 (10.8)	491 (2.9)	97 (0.6)

○ 2020년 ‘탈모증’ 질환 1인당 진료비 16만 6천 원. 2016년 대비 31.3% 증가

(3)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공급현황

- 2020년 탈모관련 전문의약품 총공급량 2억 3,192만개. 2017년 대비 70.4% 증가
- 2020년 탈모관련 전문의약품 총공급액 1,895억 원. 2017년 대비 50.6% 증가

< 2017년~2021년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

(단위 : 천개,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1월	증감률 (17년 대비 20년)	연평균 증감률 (17년~210년)
공급량	131,861	157,106	192,626	224,645	231,927	70.4%	19.5%
공급액	125,859	145,132	171,378	189,573	183,428	50.6%	14.7%

※의약품: 탈모치료제 성분 ATC코드 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225개 품목기준코드 기준

※공급량: 날개 단위(정, 액제 등)로 환산한 수량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3. (기능적) 탈모환자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 필요성

- 탈모인구 1,000만 시대
 - but.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지난해 23만 3천 명에 불과
 - ⇒ 탈모를 치료·개선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 ↑
- 탈모는 특정 연령, 성별, 계층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문제
- 최근 30대 이하 탈모인구 증가
 - 납부하는 건보료에 비해 의료이용이 너무 적은 상황.
 - 어찌다 병원 가더라도 급여 제한으로 인한 상실감
- 탈모는 불안, 자신감 상실, 대인기피증, 정신건강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 필요

- 경구약제, 모발이식, 두피케어 등 **탈모 치료비 증가**
 - * 프로페시아정 판매가 14~16만원(3개월), 모발이식 약 2천모(100cm²)당 300~500만원 수준
 - * 3개월 이상 복용한 일반 의약품별 지출 비용 순위 : 탈모치료제(33만 7224원), 비만치료제(25만 8173원), 인사돌(17만 2626원) 순(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탈모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실손보험 가입도 반려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있음
- **‘탈모 치료제의 급여화’ 청와대 국민청원(예시)**
 - * 제발 탈모인들을 구제해주세요~(2018.8.25.)
 - * 탈모약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해서 복지확대 해주십시오(2018.8.25.)
 - * 탈모는 질병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꿔주세요(2018.8.16.)
 - * 전신 탈모 환자 국가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2018.4.2.)
 - * 탈모를 질환으로 규정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2017.11.8.)
-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리스트어 프로젝트’ 국민 공약**

□ Q&A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 관련 Q&A

Q1. 탈모치료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현재 ‘병적탈모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능성 탈모치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전자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모근을 공격(자가면역질환)해 탈모 발생, 주로 동전 모양의 ‘탈모반’ 형성이 특징으로 심하면 전신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빠르면 사춘기부터 머리숱이 줄어들며 머리 측면과 뒷면은 보전되고 중앙이 비는 M 또는 O형 탈모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질병 요인의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 중이나, 노화에 대한 외모 개선 목적인 기능성 탈모 치료는 모두 비급여입니다.

Q2. 탈모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추가 확대가 꼭 필요한가요?

☞ 탈모로 인해 불안, 대인기피증, 관계 단절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별적 시선이 탈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이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탈모는 특정 연령, 성별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고민입니다. 탈모약을 복용하면 실손보험 가입도 반려되기도 합니다. 4조 원대 이상의 탈모 시장. 탈모산업은 성장하지만 탈모인들의 부담은 커져갑니다. 탈모를 웃음거리로 삼는 풍토와 차별적 시선 앞에 탈모는 ‘질병’임을 분명히 하고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 모든 탈모치료를 급여화 할 수는 없습니다. 탈모치료를 급여화 하더라도 일정한 급여 기준을 만들고 본인부담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탈모치료를 급여화 할 경우 탈모와 관련 탈모 관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편법적인 의료 이용 행태도 줄일 수 있습니다.

Q4.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탈모 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일부 커뮤니티에서 탈모치료 급여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캠프 정책본부는 다양한 자료 검토, 의견 수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올해 초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건의했고 이를 소확행으로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요구가 공약으로 만

들어지고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Q5. 탈모치료를 위해 탈모치료약 뿐 아니라 모발이식과 같은 수술도 포함되나요?

☞ 탈모치료를 위한 모든 약제와 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탈모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필요시 중증탈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중증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Q6. 미용 목적인 탈모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탈모는 치료가 필요한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탈모의 경우에도 경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적탈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탈모’ 중에서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더라도 본인부담금, 급여 기준, 약가 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Q7.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강보험이 암이나 중증질환, 필수진료 분야에 더 집중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향이고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이나 부담을 겪고 있는 문제나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경우 범위,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소요가 동반되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